



<직장인의 기도>

매일 아침 기대와 설렘을 안고,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,
항상 미소를 잃지 않게 하시어, 나로 인하여 남들이 찡그리지 않게 하소서,

상사와 선배를 존경하고, 아울러 동료와 후배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
아부와 질시를, 교만과 비굴함을 멀리 하게 하소서,

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고,
넓은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
일주일에 몇 시간쯤은, 한 권의 책과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
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,

한 가지 이상의 취미를 갖게 하시고, 한 달에 한 번쯤은 지나온 나날들을 반성하고
미래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, 시인인 동시에 철학자가 되게 하소서,

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
큰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시고
적극적이고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,

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
남의 허물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과
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옵소서,

어려운 날들을 무사히 넘기게 해 주시고
남보다 한 발 앞서감이 영원한 앞서감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시고
또한 한 걸음 뒤쳐짐이 영원한 뒤쳐짐이 아님을 알게 하소서

자기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
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
매사에 충실하여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
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,

그리하여 이 직장을 그만 두는 날, 또는 생을 마감하는 날에
과거는 전부 아름다웠던 것처럼, 내가 여기서 만나고 헤어지고
혹은 다투고 이야기 나눈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, 살며시 미소 짓게 하소서,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, 아멘,

